

## 북한 청소년 생활\*

송 광 성\*\*  
박 성 희  
정 문 성  
김 경 준

- I. 북한 청소년 정책
- II. 초·중등학교 생활
- III. 대학 생활
- IV. 군대 생활
- V. 직장 생활
- VI. 조직사회 생활
- VII. 가정과 여가 생활

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노동당의 청년정책은 1) 청년대열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 2) 청년들을 주체사상에 근거한 혁명의 계승자로 육성하는 것, 3)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로 육성하는 것, 4) 청년동맹을 강화하고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

북한은 해방후에 생겨난 여러 청년 조직들 즉, 공산청년동맹, 무산청년동맹, 해방청년동맹, 농민청년동맹, 학생동맹 등을 하나로 모아서 1946년 1월 17일 민주청년동맹(민청)을 만들었다. 이제 북한의 모든 청년들이 민청에 가입되어 조직 바깥에 있는 청년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후 북한 사회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진하면서 1964년 5월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개편하였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사로청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리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어 개인 상공업자와 개인 농민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고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 로동청년으로 뭉쳐 따라 민주청

### I. 북한 청소년 정책

남한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이로 규정하는데, 북한에서는 9살에서 13살까지는 소년단에 모두 포함하고, 14살에서 30살까지는 모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에 포함되므로, 북한청소년은 전체 소년단원과 일부 사로청원을 포함하게 된다. 소년단은 사로청의 지도를 받고 사로청은 노동당의 감독을 받으므로, 노동당의 청년정책이 곧 북한청소년 정

\* 이 논문은 본원의 1993년도 연구과제인 「북한 청소년 생활」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원의 송광성(연구위원), 박성희(선임연구원), 정문성(연구원), 김경준(연구원).

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광범한 근로청년들이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1984a : 29).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으면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의 계승자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세워지고, 청년들의 정치사상 교양사업이 강화되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과 청년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심장은 언제나 주체사상으로 고동쳐야 하며, 청년들의 몸에는 오직 주체사상의 붉은 피만 흘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93 : 12). 북한은 전민민의 인데리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도덕은 북한교육의 기본이고, 체력은 국방력과 노동력의 토대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청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능력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은 사로청 조직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조선로동당, 1984a : 208).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위대한 혁명력량입니다. 생기 발랄하고 혈기 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위대한 사회적 변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1985b : 397). 이 김일성 교시에 따라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로 역할하도록 육성하여, 구체적으로 경제건설과 국방방위에서 선봉대가 되게 하였다. 특히 경제건설의 어려운 부분에서 청년들이 돌격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하며 공업,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1982 : 321). 탄광과 광산, 임업과 수산, 도로항만 건설과 운수, 농촌경리 부문 등이 가장 힘든 부문이었다. 그래서 건장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이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서 인민경제계획도 앞당겨 완수하였다. 북한당국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총 들고 민족독립운동을 하던 전통과 미국제국주의에 항거하여 한국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경험을 가졌다고 보는 북한 청년들에게 조국방위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떠 맡기고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이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로동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전국을 요새화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조선로동당, 1984b : 55).

북한 청년정책의 핵심은 모든 청소년들을 모아 하나의 청년동맹으로 조직해서 그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건설에 쓸모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청년동맹이란 조직을 강화하고 그 조직이 중심이 돼서 전개하는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청년동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야 청년들이 생기 발랄하게 움직이고, 동맹이 맡은 과업 즉, 청년들을 정치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적 조직으로 결속 단련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 동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김정일은 사로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은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는 혁명의 학교입니다. 청년들은 사로청원의 높

은 공지와 영예를 가지고 사로청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김정일, 1989 : 19).

## II. 초·중등학교 생활

북한교육의 기본정책은 1977년 9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로 발표 되었다. 여기서 북한 교육이념의 전제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할 과업이 있고, 이 과업의 성취에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해야 하는데, 사상적 요새의 점령을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북한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결국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며, 그것의 기초로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교육에서 양성, 노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셋째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아세이문제 연구소, 1983).

북한의 일반교육제도는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3~6년, 연구원 3~4년, 그리고 박사원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는 4년의 중등반과 2년의 고등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학제구분상 별로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포함하여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교 6년의 11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정규학교 외에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어촌과 광산 등의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체부설학교들이 많이 있다. 정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년제의 근로자 고등중학교와 4년제 공장고등전문학교도 더러 있으나, 현장교육의 성격을 가진 5~6년제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노동생산대학이 대부분이다.

이 학교들은 해당 공장·기업소의 자금으로 관리·운영된다. 교원은 공장·기업소간부들이 맡고 실험·실습기재는 공장시설을 이용하며, 교과목은 해당 공장·기업소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택하는 등 교육활동이 소속공장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학생들의 작업에 따라 주간과 야간의 2부제로 운영되며, 졸업자에게는 일반 학교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는 도시지역은 1~2개동마다, 농촌지역은 1~2개 리단위로 하나씩 세웠다. 인민학교는 학교규모가 작고 분교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고등중학교가 병설된 곳도 있다. 인민학교는 남녀공학인데 학교규모가 아주 작은 시골이나 저학년의 경우는 남녀합반이 있으나, 대부분은 남녀학생을 각각 다른 반으로 편성한다. 고등중학교는 남녀공학은 거의 없고 남자고등중학교와 여자고등중학교로 분리되었다. 북한의 신학기는 9월이기 때문에 입학식은 9월중에, 졸업식은 7월중에 가진다.

11년제의 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없고 학용품은 무료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교복, 교과서, 학용품 등을싼 값으로 산다. 교과서를 비롯한 학용품은 아무 때나 개인별로 구입할 수 없으며, 학년초에 학교에서 발부하는 구매표를 받아 상점에서 구입하거나, 학교에

서 단체로 구입하여 나누어 준다.

사회주의 교육방법은, 첫째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둘째 이론과 실천교육의 결합 및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셋째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의 강화, 네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다섯째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다. 좁은 의미의 교육방법 즉, 학교교육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육방법은 집단의 원리, 경쟁의 원리, 비판의 원리, 공개적 상벌의 원리, 통제와 자제의 원리 등이다(김동규, 1990).

학교교육은 교과목의 학습이 중심인 정규적인 수업활동과 생활경험이 중심인 과외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교육활동은 정규수업 내용이 과외활동을 통하여 강화되는 식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개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집을 떠난다. 도시에서 학교가 먼 학생들은 버스로 통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걸어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로 걸어 간다. 학생들은 동네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인원 확인과 복장검사를 한 후에 함께 등교한다. 개인행동을 했을 때는 상급생이나 담임교원에게 벌을 받는다. 학급장이나 학생조직장의 지휘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줄을 서서 합창을 하면서 학교로 간다.

학교수업은 인민학교가 하루에 4~5시간, 고등중학교 중등반은 6~7시간, 고등반은 6~8시간 정도 한다. 수업시간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의 경우 45분 수업에 15분 휴식이며, 고등반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다. 토요일도 평상시와 똑같이 수업을 한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집이 가까운 학생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오기도 하나, 대부분은 집에

서 준비해 온 확밥(도시락)을 먹는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담임교원의 지도하에 일일 또는 주간 생활총화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에는 하루 또는 한 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반성하기도 하나, 대부분 학급반장이나 줄반장들이 적은 것을 발표하여 비판한다. 생활총화가 끝난 후, 자율학습 또는 과외학습이 시작되어 집체복습과 개별적인 학습, 그리고 학업성적이 부진한 자들에 대한 집중학습이 이루어진다. 복습끝에는 시험총화가 있어 그 총화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한다. 교과활동이 끝나면 과외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년단이나 사로청이 작성한 월별, 주별, 일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학습, 근로봉사, 각종 회의와 모임참석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통일원, 1992a).

집에 돌아간 학생들은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별로 구성된 학습반에서 숙제를 한다. 학습반은 동네마다 집이 가까운 7~8명의 학생으로 조직되며, 이를 책임지는 학습반장이 있다. 학습반은 순번제로 매일 다른 집에 모여서, 숙제뿐만 아니라 꼬마계획과 외화별이 운동도 함께 실행한다. 학생들은 학습반 활동이 끝나면 동네 친구들과 논다. 고등중학생은 과외활동이 너무 많아서 저녁 늦게나(대개 저녁 7시, 토요일은 4시경)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이 거의 없다.

### III. 대학 생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정은, 2~3년제 고등전문학교, 인민학교와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

대학, 고등중학교 교원을 기르는 4~6년제 사범 대학 및 일반대학이 있다. 교육연한은 김일성종합 대학 등 일부 국책대학이 4~6년, 의학 대학이 6년, 기타 대학이 4년제로 되어 있다. 그 밖의 주요 고등교육기관으로, 산업체부설대학, 통신학부, 특수대학 등이 있다.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하자면 학력에 관한 시험으로 자격고사와 입학고사를 봐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출신성분과 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대학입학지원자는 1,2,3지망까지 희망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중앙의 인력계획이 우선시 되므로 배정받은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게 된다.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가족과 친족의 출신성분이 약 3분의1, 사로청을 통한 노력동원이나 정치사회단체 생활평점이 약 3분의1, 그리고 입학시험성적이 약 3분의1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출신별 유형을 보면, 제대군인이 약 70퍼센트, 직장재직자가 약 20퍼센트, 그리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직통생이 약 10퍼센트 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신학기는 9월1일에 시작되고, 수업시간은 1학기 17주와 2학기 18주로 연 35주이고, 주당 38~40시간을 수업하며, 시험은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보는데, 필답고사와 구두시험이 있고, 성적은 최우등, 우등, 보통, 낙제로 나눈다. 북한은 학점제가 아니고 학급제로 운영하며, 시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품행이 우등이상이 아니면 진급이 안된다(통일원, 1993).

학생이 여러단계의 심사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 학과와 반이 정해지고, 반이 정해지면 책과 교복이 지급되며 기숙사가 정해진다. 대학생들은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는데, 아침 8시부터 강의실에 모여 학급단위로 30분동안 독보회에서 로동신문,

로동청년 등을 읽는다.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학습을 하고나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오후학습을 하고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은 다음 기숙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하루일과에 대한 생활총화를 통하여 자아비판 등 공개적인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복습·예습하고 10시반에 잠자리에 든다(윤형덕, 1981 : 38~39)

북한 교육이념의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과외활동은 대학당위원회와 사로청위원회 중심으로 한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학과수업이 끝나면 월별, 주별, 일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로청간부가 지도하는 단체활동에 참가한다. 단체생활에 참여하고 나서 사업총화와 생활총화를 매일, 매주, 매월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업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정치생활의 평점이 좋아야 사회진출 시기에 혜택과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씨클활동을 소조활동이라고 부르는데 문예소조로는 문학, 연극, 예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씨클이 있고, 체육소조에는 구기, 육상, 빙상, 산악부가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졸업논문이 통과되어야 한다. 학생이 논문제목을 선택하고 학과장이 허락을 하면, 대개 6~12개월 걸려서 논문을 쓴다. 다 쓴 논문과 참고문헌을 제출하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계산과 묘사의 정확성, 대학교 전 학년의 성적, 지도교수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졸업논문은 다른 교수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질문에 답변해야 된다(김동규, 1989 : 83~84)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에 합당한 자격을 받는데 제1교원대학 졸업자는 인민학교 교원, 제2교원대

학 졸업자는 유치원 교양원, 제1사범대학 졸업자는 고등중학교 고등반(5~6학년) 교원, 제2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 중등반(1~4학년) 교원 자격을 준다. 의과 대학은 의사자격, 농수산계를 포함한 이공계대학 졸업생은 전공에 상응한 기사자격을 주고, 인문·사회·외국어 및 예·체능계 대학에서는 전문가 자격을 준다. 종합군사학 졸업시험 합격자에게는 2~3년제 대학에서는 인민군 예비하사관, 4~6년제 대학에서는 인민군 예비군관 자격을 준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1989년 현재 졸업생 숫자가 6만여 명인데 정무원내 부부장급(차관급) 이상 간부의 절반 정도가 이 대학 출신이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종합대학은 단과대학과 학과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15개의 학부에 51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또 51개 학과는 600여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학에는 야간강좌와 통신강좌도 있다.

이 대학 학생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침 8시부터 30분간 독보회에서 로동신문, 로동청년 등을 읽고, 8시 30분에 시작해서 19시까지 학습을 마치고, 1시간 동안 각종 집회, 1시간 동안 생활총화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은 사로청을 통하여 정치생활을 하고, 자기가 하고싶은 분야의 과외소조에 들어 문예활동은 물론 학문분야도 소조를 중심으로 더욱 보충한다.

#### IV. 군대 생활

북한군의 기본적인 성격은 항일 빨치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과 당이 이끄는 사회주의혁명의 무장력이라는 것이다. 북한 인민군은 출신성

분과 당성이 인정되는 핵심계층과 기본계층의 자녀들에게만 입대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기구에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 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군사간부가 당내에서 각자의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이다.

북한의 정규 무력이라고 하면 물론 인민군이지만, 이 외에도 예비전력인 준군사조직이 존재한다. 가장 대규모인 '로농적위대',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조직하고 군대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인 '붉은청년군위대', 사회안전부 산하의 '인민경비대', 그리고 제대군인과 사회인, 대학생으로 조직한 '교도대'가 있다. 로농적위대는 41세 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부대로 편성된다. 붉은청년군위대는 사로청원과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들(14~17세) 중에서 성분이 좋은 자녀들로 조직된다. 인민경비대는 군에서 제대한 청장년 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15일간씩 교대조로 동원하고 조직한다. 주요 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이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의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에서 가장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농민의 자녀들이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은 농민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당중도 받을 수 있고 거의 8년동안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에 가려고 하는것이다.

신 대원훈련은 일반 보병일 경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군은 시기와 주변정세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다. 그래도 붉은청년군위대 시절 현역 보병이 이수해야

할 기본훈련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신 대원 훈련을 줄여서 받아도 전사생활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신 대원훈련을 마친 군관과 전사는 각 개인의 신체조건, 학력, 민간경력, 개인특기 등을 참작하여 병과와 직무를 주어 장차 개인이 근무할 부대에 배치한다. 인민군의 일과표에 포함된 공통된 내용은 대체로 기상, 조기체조, 세면 및 청소, 시사보도청취, 아침대열검사, 조식, 상학준비검열('상학'이라는 말 속에는 '교육을 실시함'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오전상학, 중식, 오후상학, 조준훈련, 무기청소, 석식, 오락시간, 자유시간 및 중대장 총화시간, 저녁점검, 취침 등이다.(북한연구소, 1983 : 1519~1521; 서동익, 1987 : 111~116)

국가휴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각 사단별로 휴식일을 정하여 실시하는데 일요일에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세탁, 이발, 목욕, 일광소독을 실시하고 기타 시간에는 체육 또는 영내 휴무를 실시한다. 그러나 체력단련, 무기수입, 체육훈련 등으로 외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다만 때때로 단체 영화관람, 독보회, 군중문화오락 등이 실시될 뿐이다. 특히 군사분계선 근방 근무부대는 일요일이 없고 비번일 때에 한해 세탁, 이발 등을 실시한다. 3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당원과 초급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정기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휴가기간은 15일 정도이다.

북한에서 군인에 대한 대표적인 후생사업은 군인 및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군인상점이다. 군인상점은 대대급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독립중대 및 민경중대 안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해서 운영한다. 군인상점은 주당 1회 소대, 중대단위로 1~2명씩 차출하여 지휘관 허락하에 단체매입을 실시한다. 이것은 군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것이

라기보다 군관가족을 위한 생활필수품 공급장소이다.

인민군 복무조례에 따르면 일반 하전사의 복무연한은 육군 3년6개월, 해군과 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 만들어 놓은 규정일 뿐 거의 준수되지 않는다. 일반 하전사의 실제 복무연한은 8년에서 10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제대의 종류는 만기제대, 과령제대, 감정제대(의병, 의가사제대, 성분불량제대)로 구분된다. 만기제대는 8~10년 간의 정상적인 복무를 마치고 하는 제대이고, 과령제대는 8~10년 간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연령이 초과되어 하는 제대이며, 감정제대는 신체적 결함으로 더 복무할 수 없는 자나 정치범과 반당 종파분자로 가족이 교화소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추방되는 경우와 성분재조사사업에서 악질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자에 한해서 강제로 쫓아내는 제대를 의미한다.

규정에는 제대군인의 적성과 전문기술, 그리고 희망직종을 고려하여 1차 교향지역 직장, 2차 교향근접지역 직장, 3차 타 도시 직장으로 제대군인을 배치한다고 제도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현실이 제대군인의 다양한 개인적 희망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대군인들은 내정된 직장에 가서 직업배치 수속을 완료한 후 귀가하여 수일간(15일 정도)의 휴식을 취한 다음 직장에 나간다.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과정을 거쳐 북한 청소년들은 제대와 함께 직장배치를 받는다.

## V. 직장 생활

북한헌법 제15조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을 금하고 있지만, 16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청

소년과 성인에 대한 구별이 없는 것 같다.

기업소나 공장에서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노동력의 낭비를 막아 사회전체의 생산능률과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동조직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노동조직을 살펴 보면 (3급기업소), 지배인과 기사정 밑에 3~4개의 직장이 있고, 각 직장은 다시 3~4개의 직공으로 나누어지고, 각 직공은 3~5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1개 작업반은 20~30명의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일의 성격에 따라 작업은 나누어 담당한다. 북한직장에서의 상하관계는 철도, 탄광, 수산업 등 특수분야에서는 작업안전을 위하여 규율과 위계질서가 엄격하지만, 그밖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 정기적 승진이나 진급은 없고 기술직의 경우 시험을 통해 급수가 높아지고, 그외는 그 분야에서 쌓은 경험 이 제일 중요한 진급 요소라고 한다.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북한이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 수준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노력동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생산증가와 물자절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작업반, 공장, 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전인민적 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대적인 노력경쟁운동은 1950년에 시작된 천리마운동과 1960년대에 널리 퍼진 속도전 운동이 있다. 천리마운동은 생산설비능력은 6만톤인데 실제로 12만톤을 생산했다는 강선제강소를 본보기로 삼고 시작되어, 대중들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노선이라면, 속도전 운동은 기본노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업에서 벌이는 증산운동이다.

북한 노동자의 하루 생활은 노동, 학습, 휴식으로 나누어진다. 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씩 일주

일에 48시간으로 로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로동자들은 하루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과중한 노동정량과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게 되고, 매일 학습과 총화를 해야하므로 보통 12시간 정도 직장에서 지내게 된다고 한다.

노동자의 임금은 정액지급제와 도급지급제가 있는데 노동자, 농민에게는 도급 지급제가 적용되고, 의사, 교사, 사무원 등은 급수에 따른 정액지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1년간 농사에 투자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현물과 현금을 분배받는데 1인당 노동의 양과 질을 매일 평가한 노력공수의 총계로 결정된다. 1991년 현재 주요 계층별 임금수준은, 당.정무원 부장급은 300~350원, 군인민위원장급과 1~2급 기업소 지배인은 150~200원, 광부와 채련공은 90~100원, 운전기사과 일반 노동자는 70~80원, 사무원 및 식당과 상점 직원은 50~80원이다. 북한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화폐수입은 약 7대 1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통일원, 1992: 286) 근로자 수입의 실질구매력은 물가와 비교해야 알 수 있는데, 가격결정에서 대중소비품은 낮게, 사치품은 높게 정한다. 곡물가격은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아주 낮게 정하지만 공급량이 부족해서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서는 아주 비싸게 거래된다.

북한 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무리배치(집단 배치)된다.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작업반 단위로 출근확인을 한 후 약 30분간 독보회를 하는데,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다. 그후 작업 조직 및 배치가 개인, 분조, 작업반 단위로 실시되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이 원칙이다. 오전 일과는 12시에 끝나고 1시 (가끔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을 싸오던가 집에가서 먹으며, 구내 식당은 없다. 오후 6시에 기본 일과가 끝나면, 작업반 별 (또는 직장별)로 약 1시간 동안 작업총화가 있다. 작업총화란 직장 지배인과 당비서를 중심으로 하는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인데, 직장 뿐 아니라 학교, 군대 등 어떤 조직에서도 일반화된 일과이다.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누구나 하루 1~2시간씩 1주일에 2~3번 학습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후 각종 회의나 학습이 진행된 뒤 사무원은 오후 7시, 노동자는 8시 경이면 퇴근하게 된다.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진 북한 사회라 하더라도, 직장생활에서 여자청소년들은 직종이나 임금 등에서 남자들과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기혼여성의 70~80퍼센트가 직업을 갖지 않고 미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이 90퍼센트를 넘는데, 처녀가 결혼을 하면 10명 중 6~7명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한다.

북한의 법령은 노동에서의 남녀평등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59조는 여성노동의 보호와 유해노동금지를, 66조는 산전 산후 휴가 등을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들은 실제로 잘 시행되고 있으며, 산전 산후 휴가는 법령규정의 77일보다 더 많은 150일이 주어진다고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말한다. 북한이 자랑할 만한 여성노동의 모범적 조건은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이다. 1991년 현재 6만여 개의 탁아소, 유치원이 166만 명의 아동을 수용하였다는데 직장여성 대부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윤미량, 1991 : 205). 그러나 여성 노동력은 주로 임

금이 싼 직업에 집중배치되기 때문에 노동의 질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다.

남자와 여자청소년들의 직장생활에서 차이가 나는 것 처럼 도시와 농촌 사이에도 청소년들의 직장생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협동농장은 군당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정치·행정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받는다. 1개 협동농장은 평균하여 약 300 가구가 약 500정보의 토지를 경작하며, 개인농가는 20~30 평의 터밭에서 채소 등 농사도 짓고 닭, 돼지 등 가축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협동농장은 농사활동의 기초단위로 약 8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고, 공동소유의 농기구를 사용하여 작업반 단위로 집단적 노동을 수행한다. 한 작업반은 다시 5~6개의 분조로 나뉘는데 한 분조에 7~8개 세대의 15~20 농장원으로 구성된다.

북한농민의 하루생활은 소속된 협동농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일과는 비슷하다. 농민들은 대부분 새벽에 마을의 종소리나 사이렌에 따라 기상하여 지정된 장소에 작업반이나 분조별로 집합하여 15~30분 동안 조회를 한다. 조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작업도구를 준비하고 다시 나와 분조마다 할당된 작업량에 따라 출근전 작업을 한다. 그후 집에 돌아가 아침밥을 먹고 8시까지 농장에 출근해 분조별로 작업량을 할당받는다. 오전작업은 12시까지인데 중간에 10시쯤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다. 오후 3시까지 점심식사 겸 휴식시간이고, 오후 작업은 7시경에 작업총화를 해서 그날 각자의 노력공수가 발표되는 것을 듣고 집에 간다. 농장원도 거의 매일 정치학습이나 회의에 참가하는데 도시와 비슷하다. 다만 농장원들은 일요일 대신에 열흘에 한번씩 휴식일 (1, 11, 21일)이 있어 쉬고, 그날에 농민시장이 열린다(통일원, 1993 : 135~136).

## VI. 조직사회 생활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을 빼고 주민의 생활을 이 해하기는 힘들다. 북한의 청소년조직은 연령에 따라 “조선소년단”과 “사로청”이라는 단일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소년단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 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다”(정치사전, 1973 : 1017). 소년단은 지역별 학교별로 조직되어 현재 약 350만 명의 단원을 가졌다. 소년단 가입대상은 만 6세~13세까지의 어린이이며 인민학교 1,2학년(만 6~7세)어린이는 열성이 있는 일부 어린이만 가입하고 3학년(만 8세)이 되면 전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 활동하게 된다.

학교소년단 밑에는 학년별로 분단(분단장, 위원 4~6명)이 있고, 학급별로 반(반장 1, 부반장 1, 분조원 10~15명)이 있다.

북한은 청소년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실제로 노동을 경험하게 한다. 1959년 3월 2일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의무노동제를 합법화하여 인민학교는 연간 2~4주 동안 수업을 전폐하고 노동만 하게 되었다. 꼬마계획은 북한의 경제계획 연도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할당된 노력을 동원하게 한다. 공장이나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에 인민경제지표가 하달되면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파고철, 파유리, 파종이, 송이버섯 등을 수집하도록 한다. 농번기에는 소년단을 중심으로 농촌지원사업(년 2~4회)으로 3~5개월에 걸쳐 모심기, 제초작업, 관수작업, 추수 등에 동원된다(감학준외, 1987 : 52). 북한 사로청은 “항일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직된 조선청년들

의 공산주의적 대중적 혁명조직으로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우리 혁명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조직되었다. 사로청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청원서’와 ‘소년단위원회 및 동맹원(1명)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청원서에 대한 심사는 초급단체 총회에서 실시하며 가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군 동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다.

14세부터 들어갈 수 있는 사로청은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투쟁하는 자로, 맹원은 누구나 맹비를 내어야 한다. 맹원이 되면 소년단 벡타이를 풀고 맹원증을 받는다. 사로청은 청년들의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는 대중적 체육문화를 숭선하여 발전시키며, 소년단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특별한 노력동원 지시가 없을 때는 학교가 파한뒤 달리기, 체조, 군중무용 등의 체육활동을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외에 분야별 학습활동을 하는데, 학과별 연구서클, 예능서클, 독후감 감상발표회, 영화감상회, 혁명전적지 답사, 창작발표회, 시낭송회, 미술전람회, 담화회, 전투영웅들과의 대화 등이 있고, 학생들은 이런 서클에 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 VII. 가정과 여가 생활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식주이다. 특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은 가장 큰 관심사이다. 북한은 1957년 11월을 기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식량배급제를 확대 실시하였다. 식량 및 생필품은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데 계층은 주민들의 성분, 직위, 직종, 연령등을 기준으로 ‘매일공급대상’, ‘일주공급대상’, ‘월공급대상’, ‘인

민반공급대상'으로 구분되며 양과 질은 물론 규격까지 차등지어져 있다. 청소년들이 간식을 즐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농촌의 경우에는 85퍼센트가 산악인 관계로 배가 출출하면 산에 올라가 머루, 밤, 칠팔리 등을 먹기도 한다. 도시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으로 청량음료나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기도 한다. 유치원생들은 빵이나 강냉이 등을 간식으로 주기도 하며 평양 등 대도시는 집에 돌아갈 때 사탕이나 과자를 주기도 한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인민학생들에게 우유를 한 컵씩 배급하기도 한다. 생일 때는 특별한 음식보다 보통 때 먹기 힘든 쌀밥을 해주기도 하지만 미역국을 먹는 일은 드물다.

북한 주민의 의생활은 그들 사회의 폐쇄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단조롭고 획일적이다. 학생들은 매년 동복과 하복을 구입하는데 인민학교의 경우 하복은 7~8원, 동복은 10~12원 정도이며, 고등학교 학생은 하복이 12~13원, 동복은 16~17원 정도이다. 3명이상의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교복대금을 15 퍼센트 할인해 주기도 한다. 그밖에 겨울에는 외투가 배급되는데. 가격은 30~40원이다. 모자, 가방, 신발 등은 3~5원 정도이다. 의복은 수시로 아무 곳에서나 구입할 수 없으며 구입시기를 놓치면 일정기간 살 수 없다.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된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배정받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1호인 소규모 주택을 배정받는데 집단 주택, 농촌의 초가, 농촌 문화주택 등이 여기에 속하며, 도시 집단주택의 규모는 방 1개, 부엌 1개이고 공동변소·공동수도통을 이용하고 있고, 입주 대상은 일반노동자, 탄광노동자, 사무원등이다. 농촌 문화주택의 경우 그 규모 역시 방 1~2칸,

부엌 1칸의 연립주택형으로 공동수도·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통제된 학교학습시간과 조직활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북한청소년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지 못 하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가정에 돌아오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고, 각종 '좋은 일하기 운동'을 해야 한다. 땀감이나 구멍탄을 나르며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돕느라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북한 청소년들이 학습이나 과제가 끝났거나 도와줄 집안일이 없을 때 보내는 휴식적 여가생활은 특별한 형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보급이 부족한 북한에서 청소년들은 그냥 친구들과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쉬는 정도가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문화활동이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생활의 형식이 매우 단조로우며, 각종 공연, 영화상영, 전시회 등은 노동당이나 정 부당국의 일방적인 연간 행사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특수층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문화생활을 누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TV수상기 보급률은 평양의 경우 60~70 퍼센트이고 지방은 20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 그나마 흑백 TV가 대부분이고, TV프로그램도 시사적인 뉴스와 사상과 교양이 중심이어서 TV문화가 아직은 초기단계인 것 같다.

라디오는 각 가정에 유선방송의 선을 끌어 스피커를 설치하고 주로 중앙방송을 청취하게 한다. 스피커선은 전신전화소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나

스피커는 상점에서 배정받아 구입해야 한다.

영화관람은 북한 서민대중이 가장 즐기는 오락이다. 영화관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1개 이상 마련돼 있으며, 연극공연과 대중집회장소로 사용되는 극장도 비교적 잘 돼 있다. 평양시내에는 전승영화관, 락원영화관 등 5백 내지 1천석 정도의 큰 영화관이 6개 정도 있으며 일반도시의 경우 4~6개소씩 설치돼 있다. 영화관을 주로 찾는 계층은 청소년들인데 이들은 월 2~3편 정도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과 같이 연소자 관람불가와 같은 구분은 없다.

북한청소년이 개인적으로 관광여행을 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양에 사는 청소년의 경우는 평양시 관광명소인 만경대, 평양지하철, 창광원, 소년궁전, 9.15탁아소, 김일성대학, 만수대극장, 평양산원 등 대형 시설물들을 구경할 기회가 있지만, 지방의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명소를 관람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소년단이나 사로청에서 열성 맹원에게 집단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는 경

우가 있다. 청소년들이 교외로 놀러가는 일도 거의 없다(김학준 외, 191). 시골의 경우에는 산이 많으므로 가까운 산에 가서 놀기도 하고, 산나물이나 열매를 따 먹기도 하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등산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대부분 학교나 소년단 등의 집단적인 원적(소풍)이나, 행군 등의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할 뿐이다. 때로는 학교에서 과외공부로 가까운 산이나 공원 등에 전학가는 경우도 있다.

북한청소년들이 노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1960~70년대의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동네친구들이 모여서 별다른 도구없이 자연물을 이용하거나 몸으로 하는 놀이를 즐기고 있다. “친구들끼리 동네에서 놀 때는 남자청소년은 물아기치기, 소독치기, 공차기, 인사놀이, 외발 스케이트, 팽이치기 등을 하는데 모치기는 지주의 놀이라 해서, 땅따먹기는 자본주의 근성을 심는 것이라 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줄넘기나 씨차기 자갈차기 말타기 소타기등을 합니다”(귀순자 안혁, 김창화).

## 참 고 문 헌

(북한자료)

경제사전. 1985.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 1993. 「청년들은 당의 경도를 높이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사로청제8차 대회에 보낸 서한, (2월 22일), 천리마, (3월 : 9~13).

1975.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김정일. 1989.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 12일).

대륙연구소. 1990. 「북한법령집」, I - V.

대학생. 1981년 3월. 금성청년출판사.

로동신문. 1989.8.24.

로동신문. 1981.10.22.

백과사전. 1983.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아세아문제연구소.

1983. 「북한연구자료집」, IX : 747~775.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92. 「북한연구자료집」, I - X II.

정치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노동당. 1982. 「김일성저작집 18권」, 로동당 출판부.
- 1984a. 「김일성저작집 26권」, 로동당 출판부.
- 1984b. 「김일성저작집 28권」, 로동당 출판부.
- 1985a. 「김일성저작집 29권」, 로동당 출판부.
- 1985b. 「김일성저작집 30권」, 로동당 출판부.
1986. 「김일성저작집 32권」, 로동당 출판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 1784~1787.
- 채종완. 1990. 「청년사업경험」, 사회과학출판사.
- (남한자료)
- NK회(김종선 역). 1991. 「북한의 100문 100답」, 다나.
- 공보처. 1993.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 곽노익. 1986. 「남북한 교육비교」, 박문잡외, 남한 비교론, 문우사 : 295~398.
- 광주편집위원. 1988. 「북한의 경제」, 광주.
- 김대영. 1990. 「북한주민의 생활수준과 문화생활」, 북한, (12월 : 58~67).
- 김대영. 1990. 「북한주민의 생활수준과 문화생활」, 북한, (12월 : 58~67).
- 김동춘. 1990. 「북한의 교육」,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 : 133~170.
- 김동규. 1989.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김동규. 1990.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 김동현. 1992. 「한 북한청년의 고백」, 월간조선, (5월 : 120~138).
- 김성일. 1990. 「북한의 청소년 교육실태」, 북한, (5월).
- 김순배. 1993. 「북한의 교육」,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 북한실태 : 135~166.
- 김애실. 1991. 「여성의 경제활동」,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 김학준 외. 1987. 「남북의 생활상」, 박영사.
- 김형찬외. 1990.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 대륙연구소. 1991. 「전망」, (8월).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1. 「북한기행 8박 9일」.
- 박길성. 1992. 「북한사회와 농민」, 북한연구, (여름 : 152~174).
- 박민제. 1993. 「러시아어에서 영어위주로, 북한의 외국어교육」,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4월) : 102~105.
-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 북한연구소. 1991. 「북한가족법과 가정실태」.
- 서동익. 1987. 「북에서 사는모습」, 북한연구소.
- 안계춘. 1989. 「북한주민생활 실태조사」, 통일원.
- 안동일. 1992. 「갈라진 45년 가서본 반쪽」, 돌베개.
- 안춘석. 1991. 「북한의 노동당과 사회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 윤형덕. 1981. 「북한의 대학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원.
- 이은죽. 1990. 「북한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사.
- 이윤희·박현선. 199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 연구」, 북한통일연구논문제점, 통일원조사실 : 243~292.
- 이중. 1987. 「집단주의적 교육체제 : 그 규범과 운용」, 고현옥외,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81~337.

- 이항구. 1978. 「북한학생들의 일과시간표」, 북한, (6월).
- 정혜문. 1988. 「북한의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대학원석사논문.
- 최완규. 1992. 「인민군의 발전과정과 당·군관계」,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대왕사.
- 쿠르바노프(문명환역). 1990. 조선일기, 한국경제신문사.
- 통일연수원. 1992a. 「북한의 군사」, 민주통일론.
- 1992b.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 1992c.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1993. 통일문답.
- 통일원. 1985. 「북한의 대학 대학생활」.
- 1992a. 「북한개요 92」.
- 1992b. 「남북한 국력추세비교연구」.
1993. 「북한 방문안내」.
- 한홍구. 1989. 「알기쉬운 북한현대사」,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학사.
- 황병선 외. 1993. 「기자들이 가본 북한」, 가나.
- 황석영. 1993. 「사람이 살고있었네」, 시와 사회.